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5년 3월호

통권 제 145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2월 교우소식

새 교우

❖ 민남홍, 이서희씨 : 동작구 신대방 2동 395-66 보라매 삼성 웨르빌 A-1201에 사는 가족으로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인 준하, 유치원생인 준영이를 두었다. 명동성당에 다니면서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개신교로 오게 되었다. 이들은 인터넷방송인 C3TV에서 당시 에덴교회에서 시무하시던 박병욱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우리 교회로 등록하시게 되었고, 등록심방을 거쳐 6교구 13구역에 소속되었다.(2월 6일 등록)



❖ 최은성씨 : 김연숙B집사님의 올케로서 강북구 미아1동 벽산A 104-105호에 사신다. 남편은 아직 교회에 나오시지 않고 혼자 등록을 하셨고 연천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 승언이도 중고등부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축구훈련을 하고 있다. 최은성씨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등록심방을 하지 못하였으나 교구는 7교구 16구역에 속한다. (2월 13일 등록)



❖ 박배규씨 : 종로구 가회동 11-69호에 사시는 박배규씨는 우리 청년부인 박경진과 중학생인 요한이의 아버지이다. 광주에서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4년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하고 계시며, 우리 교회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가끔씩 출석한 적이 있으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걱정하고 등록을 하시게 되었다. 등록당일 마침 남선교회 월례회가 있어서 한때 남선교회에서 따뜻한 환영을 해 주었고 최창해목사와 구희숙목사가 심방을 하였으며 교구는 2교구 5구역이다(2월 20일 등록).



♣ **장은미씨** : 장은미씨는 부산의 동부삼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오게 되어 독립문에 있는 영천교회에 출석을 하였다. 이곳 계동으로 12월에 이사 와서 적절한 교회를 찾다가 우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현재는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81년생으로 청년부에 소속된다. 주소는 종로구 계동 3-2로서 3교구 6구역이다(2월27일 등록).



유아세례

- ★ 김주빈(김장열, 이혜승교우 딸, 김동형집사, 이인희집사 손녀) 2월 6일 유아세례

기 증

- ★ 교회 비치용 찬송가 30권 기증 : 변상방권사
- ★ 심방용 승합차(기아 봉고III) : 장은라권사

출 산

- ★ 홍성봉·양희순교우(홍영표장로 김희수권사 2남), 1월 23일 득남(홍민기).
- ★ 추명진·김경태(추영일장로 김혜자권사 1녀), 1월 31일 득남(김승범).

별 세

- ★ 박귀례권사(김문수 교우 박노향집사 모친, 88세) 24일(목) 광주 은광교회에서 상례집례

축 하

- ★ 김수정양(김유광, 최묘희집사 1녀) 2월 26일 오후 1시 남산 자유센타 웨딩홀에서 결혼
- ★ 이시은양(이본장로 송숙연권사 1녀), 추계예술대/목원대 출강
- ★ 김종명집사(김충가·이정숙장로 1남), 부산대 사범대 불어교육과 교수임용.
- ★ 유혜정집사, 에스티코(ESTCO) 남성소품샵 오픈(광명시 파브레)

환 자

- ★ 서정호권사 : 다리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 중
- ★ 유연준권사 : 무릎 치료 후 자택에서 회복 중
- ★ 박용립집사 : 삼성의료원 953호 입원
- ★ 최형재씨(김연숙집사B 남편) : 경추디스크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 중

2005년 사순절 시작

2005년 사순절은 2월 9일부터 시작되어 3월 27일까지 지속된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부활절 전날까지의 주일을 뺀 40일 간으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참회와 경건의 훈련을 행한다. '재의 수요일'이란 사순절의 첫날로, 옛날에는 이 날에 참회자의 머리 위에 재를 뿌린 습관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술과 육식을 금하며,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한다. 통상적으로 헌신, 자제, 금식, 또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보내게 된다.

중세 때에는 이 기간 동안 교인들이 회개의 상징으로 자루옷을 입고 다녔고, 머리에는 재를 뿌리고 다녔다고 한다. 중세에는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끼(저녁)밖에 먹지 않았으며, 부활절이 지날 때까지 화려한 음악회도 허용되지 않았고, 오페라는 금지되어 있었다. 사순절, 부활절, 대림절 등, 오늘날 교회의 절기는 신앙훈련과 신앙교육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올해 종려주일은 3월 20일이고 부활주일은 3월 27일이다.

유아세례 편지

- 이 글은 김장열, 이해승교우가 2월 6일 주일 예배시에 딸의 유아세례식에서 딸에게 편지를 읽은 내용의 일부이다.

사랑하는 딸 주빈이에게
사랑하는 주빈아!

오늘은 너에게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날이란다. 주빈이를 엄마, 아빠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과 널 가졌을 때, 널 낳았을 때, 너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셨던 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란다. 아직은 우리 주빈이가 어려서, 오늘은 아빠, 엄마가 대신해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주빈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주빈이 입으로 고백하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아빠, 엄마와 함께 조금씩 신앙을 키워나가자꾸나.

주빈아!

아빠, 엄마는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단다.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줬으면 하는 것은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란다. 이 세상 주구보다도 가치있고 존귀한 사람이고, 앞으로 네가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건지 이것은 변함이 없단다. 엄마와 아빠는 하나님께 먼저 주빈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또 그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그렇게 기도할거야. 그리고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고, 난관에 부딪혀도 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기도할거야.

부디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자라길 바란다.

교사대학

교사대학 제1강이 2월 13일(주일)에 있었다. 이번 교사대학 강의에서는 담임목사인 박병욱목사님이 “예배개신을 통한 주일교회학교 새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예배의 변화로 주일학교 체제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예배를 양육의 장입과 동시에 신앙 경험의 모험이 충만한 장으로 변화시키는 가능성을 추구해 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위니컷

(Winnicott)의 대상관계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이미지와 현실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교사가 갖는 상징을 회복하여 실제적인 영적만남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에 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질적으로, 언어적 상징이 전해지기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현대어로 된 성경을 사용할 것을 권면하여 아동부나 중고등부에서는 주일예배시 새번역 성경을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역지도자 수련회

해마다 연초에 구역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구장수련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교구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수련회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양평 여교역자 안식관에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교구교역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구운영 논의, 점심식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담임목사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강의를 통해 구역과 교회를 살리는 것은 스피릿(Spirit)임을 강조하였다.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으니 성령과 함께 교구사역을 하여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도록 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령화된 한국사회와 교회속에서 미래를 튼튼히 건설하기 위하여 전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교구차원에서 새가족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환대하여 그들의 활착을 도울 것을 부탁하였다.

이날 교인관리국장인 계명의 권사는 떡과 과일을 정성껏 준비하여 구역지도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점심식사는 안식관에서 유기봉으로 재배한 음식을 먹었으며, 그곳에 준비된 찜질방에서 가족적인 분위기의 대화를 갖는 등 쉼과 위로를 얻고 한 해를 충성되어 섬길 것을 다짐하는 하루를 가졌다.

여전도회 헌신예배

2월 20일 오후에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날 강사로 오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은 요한복음 16:20-22을 가지고 “여성시대의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예배후에는 여전도회서 정성껏 마련한 떡과 다과를 들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구역연합예배

전반기 구역사역을 시작하는 구역연합예배가 25일(금) 오전 11시에 있었다. 1교구장인 김경호권사의 사회, 11교구장인 조정귀권사의 기도, 2교구장인 안부강집사의 헌금기도와 점심식사는 1~3교구가 준비하여 진행하였다. 강사로 오신 김주섭목사님(아산 천호성결교회)은 사도행전 11:19-26을 가지고 “구역장의 모델, 바나바”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초대교회의 성장원리와 마찬가지로 소그룹모임의 활성화와 구역예배의 결속이 현대 대형교회를 이루는 요인이 되었으므로 구역의 목적과 기능은 복음전도와 새신자육성이지만 친교모임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속에서 살펴볼 때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었다. 바나바를 본받는 구역장이 되어 구역원들의 사정을 간파하고 사람을 잘 세우는 leadership을 갖고 바울과 같이 진취적이고 바나바와 같이 모성애적 자상함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도전을 주었다.

전국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

2월 3일부터 5일까지 청년부에서는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열리는 선교비전 캠프에 참가하였다. 이 캠프에서는 2000여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헌신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우리 안동교회에서는 서동진의 10여명의 청년 임원, 리더들이 캠프에 참석하여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

청년부 동계수련회

2월 27일~3월 1일에 청년부에서는 동계수련회를 가졌다. 경기도 양평 미래 연구소에서 진행된 이 수련회에서는 청년 27명, 장년 7명이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었다. 4복음서를 통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는데,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주안에서 누리는 공동체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었다. 조기현장로, 장문자 장로, 오정섭집사, 황금석집사, 안일현집사 등 교회 어른들이 함께 청년

들을 여러모로 섬겨주셨고, 특히 이정배집사와 임동휘집사는 “기독교청년과 돈”, “기독교청년과 비전” 등의 특강을 진행하여 주었다.

여전도회 간담회

2월 1일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임원진과 목사님과 간담회를 가졌다. 담임목사와 부목사들, 그리고 한빛(8명), 한샘(6명), 한길(4명), 한사랑(4명), 모두 27명이 참석하였다. 이정숙장로의 안동교회 여전도회의 연혁과 대내외 사업을 소개했고, 각 지회 회장이 지회의 사업을 소개한 후 한샘여전도회 회장이 여전도회의 숨은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교회의 균형있는 사역수행을 위해 여전도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늘푸른교실 개강

늘푸른교실은 2005년 새학기 개강을 3월 2일에 하였다. 지나간 겨울을 지나고 새학기 개강을 하는 날 눈이 많이 내렸지만 서로 반가운 얼굴로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개강예배 설교를 하신 박병욱목사님은 요한복음 15:1-11절, “나는 포도나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다. 생명있는 것은 짝이 나고 자란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설적으로 연로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늘나라에 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완성하는 온전한 생명을 부여받는 것임을 인식하고 행복한 노년을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였다.

2월 담임목사 동정

- 2일(수) 백병원 병원예배 설교
- 24일(목) 종로경목협의회
조찬기도 참여
- 28일(월) 경신중고교 교사 수련회
예배 설교

총회·연합회 소식

세계 선교 주일

지난 2월 20일은 총회가 제정한 세계선교주일이 다. 총회 세계선교부(부장:송석홍 총무:신방현)는 세계선교주일을 앞두고 전국교회가 세계선교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선교부는 "2005년 2월 현재 본교단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세계 77개국에 4백55가정, 8백27명"이라면서 선교사들이 성공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국교회의 후원과 기도를 부탁했다.

한편 세계선교부는 지난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인도차이나 지역 선교대회를 열고 인도차이나 지역에 걸맞는 선교정책과 선교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인도차이나 지역 선교대회는 선교를 할 수 없는 일부 국가와 이슬람 및 불교국가를 대상으로 펼칠 수 있는 선교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또 현지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리게 된다.

특히 지역 선교대회가 한 장소에 모여 집회 및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 인도차이나 선교대회는 지역 5개국을 직접 탐방하며 현지에 맞는 선교전략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다.

평준화 사업 정착 순항 중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비 평준화 사업 실시를 위한 중·대형교회 담임목사 초청 간담회가 지난 17일 영남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돼 평준화 사업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는 이번 지역 순회 간담회를 마무리함에 따라 지난 21~22일 재정부 실행위원회를 열고 간담회 결과를 점검하는 한편 지난 25일에는 전국노회 평준화 사업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지원 현황 등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부 노회의 평준화 사업 지연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지역 간담회는 총회가 각별한 의지를 갖고 평준화 사업의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서울·수도권지역 66개 교회를 비롯한 호남지역 53개 교회와 중부지역 35개 교회, 영남지역 59개 교회 등 전국 2백14개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해 평준화 사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평준화 사업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7일, 대구 인터볼고호텔에서 열린 영남지역 간담회에서 총회장 김태범목사는 설교를 통해 "지원교회의 희생적인 참여는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도울 뿐 아니라 앞으로 목회자 수급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으로 연결된 지원 관계를 중단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평준화 사업의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노회 올해 첫 군목

안수

군 선교의 선두에서 십자가 정병의 지휘자가 될 본 교단 소속 군중 목사 후보생 3명이 올해들어 처음으로 안수를 받았다.

지난 달 27일 남대문 교회(조유택목사 시무)에서 열린 서울노회 군중 목사 안수식에서 김은식, 장윤진, 최용희 전도사가 안수를 받고 군 선교현장으로 파송받게 됐다. 이들 3명의 목사와 이미 안수를 받은 김정대(영등포노회), 황광용(강남노회) 목사 등 본 교단 소속 군중 목사들은 오는 4월 27일 영천제3사관학교에 입교해 9주간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7월 1일 임관 후 자대로 배치받게 된다.

이효종 장로(안동교회)의 사회로 드려진 이날 예배에서는 소의수 목사(금성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 제하의 설교를 전하고 정은성 목사(성수동교회)가 권면한데 이어 이날 안수받은 최용희 목사가 축도를 했다.

본 교단은 올해 모두 5명의 군중 목사를 파송하게 된다

세계선교, 패러다임을 바꾸라

한국교회는 서구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지 1백2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구며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 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통계상으로 볼 때 2030년까지 파송 선교사수가 5만이 될 것 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나 한국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한국교회 선교 정책과 선교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 환경을 맞으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전략 수립과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한층 더 성숙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선교사들은 개인적으로는 우수한 선교사들이지만 팀 사역에서는 약하다는 평을 듣는다. 모래알 같은 한국인 선교사들이란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는 협력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한국교회 선교역사는 우수한 선교구조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제주도나 산동에 파송한 선교사들은 항상 팀이 되었다. 이기풍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고 산동선교에서는 항상 세 가정 이상의 선교사 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현대 선교가 시작하면서 선교정책 구조면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발생했다. 즉 1970년대에 선교의 열기와 함께 차츰 교단 선교부가 개 교회로부터 신뢰를 잃기 시작하였다. 교단 선교부가 개 교회의 선교 열심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선교비 관리에도 신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개 교회 책임자들이 개 교회 중심으로 선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선교사가 개 교회 중심 선교 정책 구조에 매이면서부터 한국교회는 걸잡을 수 없는 선교의 경쟁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선교사 수급 절차가 현지 선교부의 필요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협력선교 방해의 출발점이 되었다. 대부분은 현지선교부의 요청이 없는데도 선교사 자신이나 파송 개 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는 부임 후에 사역지와 사역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선교사의 수용에서부터 시작하여 언어준비, 사역지 배치, 사역관리, 휴가, 임지변경 등을 현지 선교부가 도와줄 뿐 관리는 못하고 있다.

구시대적 선교방법은 더 이상 사용되기 어렵다.

이제는 선교지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력이나 자의식 개발이 현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총회의 선교전략은 전반적인 재조정과 함께 선교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문화사적 변화를 수용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고령화 사회, 교회 노인복지 문제없나?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를 7퍼센트를 넘어 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로 수년 내에 노인문제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심각하게 진행되는지는 미국의 고령화 속도와 비교해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1942년에 노인인구 비율 7퍼센트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3년에 고령사회(14%), 2028년에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해서 2019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이 71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 15년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걸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과 미주 사회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고령화 현상이 진행돼 체계적인 실버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급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대응할만한 이렇다할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로써 갑자기 불거진 노인들의 복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인구학자들은 지진(earthquake)과 같이 전 세계를 요동치게 만든다고 해서 '에이지퀘이크(agequake)'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노령인구 비율이 사회에 비해 더 높은 한국교

회는 '에이지케이'의 여파가 보다 심각하게 미칠 수 있어 시급한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교회에서는 청년들의 비율과 숫자가 모두 감소추세에 있고 교회성장률도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어 교회의 노령인구는 사회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농어촌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노령인구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러나 한국 교회는 아직 인구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 별다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 노인복지를 위한 이렇다할 정책들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대부분 교회의 내부구조만 살펴보다도 교회의 공간 활용이 얼마나 노령인구를 배려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경희대 건축공학과 이은석교수는 "공간자체를 너무 실용적으로 쓰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노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공간활용"이라며 "노인에게는 가파른 계단보다는 경사로가 필요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공간이 비실용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노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로비나 홀에서 환담을 나누고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

교회가 노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 무관심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노인복지 봉사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명성교회 사회복지 법인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정길홍관장(명성교회)은 "최근 교회가 펼치고 있는 노인봉사는 여전도회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개교회 단위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곳이 많다"면서 "최근 노인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치매 등의 문제로 전문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전문가와의 협력 봉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관장의 말대로 현재 개교회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교회 자체적으로 봉사대를 조직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인들의 요구와 열망이 다양해지면서 열정만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정 관장은 "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크게 건강, 경제, 사회참여, 고독의 문제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며 "교회는 이 네 가지 영역의 복지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관장은 교회가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료나 물리치료 봉사, 체력단련실 개방, 취업 알선, 노인 돕기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마련, 영어·컴퓨터 등의 사회교육, 고전무용, 음악 등 취미오락 교육, 자원봉사자들의 재가 복지 봉사, 치매노인들을 위한 수용시설 건립 등을 꼽았다.

한편,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이창희교수는 교회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가족수가 2~3명, 극단적인 경우는 1명인 경우가 있어 자녀를 모두 출가 시킨 후 사별 등으로 혼자된 노인들을 누가 돌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현 시대는 가족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있는 기대가 무너져 나라나 지역사회가 노인들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부는 연금 고갈 등의 문제로 노인 복지 문제에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많아 지역 사회가 노인복지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중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도 핵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회가 노인들에게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영적인 문제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인들은 종교를 떠나서 지역 사회 노인들을 방문, 상담하고 말 벗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 교회의 봉사팀들이 지속적으로 노인들을 방문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더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관과 사회에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사회의 어려운 순간마다 최전방에서서 그것들을 감당해 왔으며, 지금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앞에 두고 있다. 신앙을 기다리며 등불을 준비할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준비성이 한국교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순간이다

서울 YWCA 신임회장에 선출된 김행 씨

"부족한 사람을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서울YWCA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김 행 신임회장(새길교회 출석)은 “내게 힘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맡겨진 직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임기동안 ‘생명사랑·평등·평화의 세상을 향하여’를 주제로 “실무자들과 함께 더 기민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YWCA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뉴욕 브루클린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한 경험이 있는 김 행 회장은 “YWCA가 하나님의 기관으로 우뚝서서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라고 강조하면서 “생명과 사랑과 공동체의 비전을 갖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지역사회 의 공동체성 회복, 자연생태계와의 균형 회복을 목표로 한 건강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50/50 사회만들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키우는 지도력 양성에 힘쓰겠다”는 김 회장은 젊은 크리스찬 여성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하는 여성’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KNCC 에큐메니칼 정책협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이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불확실한 시대로 접어 들었으며, 이러한 불확실 속에 새로운 질서가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기독교 모임에서 지적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백도웅)는 향후 2년을 전망하기 위한 에큐메니칼선교정책협의회를 지난 21~22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지적하는 한편 교회협의 선교적 과제를 검토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권석교수(성공회대학교)는 “우리 시대가 혼미하고 갈 길이 분명치 않아 보이는 이유는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오랜 관성을 벗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양 교수는 “아직은 분명치 않고 과거의 것을 완전히 대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바울이 말했듯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언젠가 올 그 때에는 모든 것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듯 뚜렷해 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회협 중심의 에큐메니칼 선교의 향후 과제로 신학과 영성의 새로운 토대를 놓을 것, 에큐메니칼 학습체계 재정비, 에큐메니칼 의사소통 체계의 재정비, 에큐메니칼 운동의 비전 재정립 등이 제안됐다. 또한 정책협의회 분과별 토론에서는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 과거 청산문제, 북한핵 문제 등 현안 문제를 점검하고 교회협을 중심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교회협 각 위원회 사업에 대한 점검과 보완, 교회협 사업의 능동적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분과 토론에서는 한국교회는 지난 1백20년의 역사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고 이끌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나 최근들어 교회가 민중과 민족의 역사에서 멀어지고 있어 사실상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의 선교적 과제는 ‘생명’에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생명’에 맞춰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밖에도 북핵 문제와 관련 교회협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 원칙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문제는 본질적인 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총회·연합회 소식]과 [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 (<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존우물기

2005년 3월호 · 통권 제145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종교회

발행인 : 박 병 옥

편집인 : (교회소식) 구희숙

(교계소식) 이성철

발행일 : 2005년 3월 6일